

**의리남 장혁, 절친 차태현 연출작 '최고의 한방' 특별 출연**  
 '연예계 절친' 차태현(왼쪽)과 장혁의 우정이 또 한 번 빛났다. 차태현이 공동연출을 맡는 KBS 2TV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 장혁이 2회 특별 출연자로 출연해 최근 촬영을 마쳤다. 제작사 측은 "장혁이 하루 전날 연락을 받았음에도 흔쾌히 섭외에 응했다"며 "프로듀사'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다. 방송은 6월2일 시작한다.



## “체력의 한계 느낀 전투신, ‘소맥’으로 버텼다”

### 영화 '대립군' 수장 역 이정재

생소한 '대립군' 세 글자에 이끌려 선택 친민 캐릭터 첫 시도, 말투부터 다 바뀌어 험난한 여정... 동료와 술자리 작은 위안

20년 넘도록 연기를 해온 이정재는 관객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배우의 '의무'라고 했다. 새롭게 도전한 캐릭터에서 얻는 즐거움도 크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강박관념"이 될 정도로 무섭고 힘든 작업이다.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하기에 "짜고, 짜고 또 짜낸다"고 말한다.

잠시라도 쉬 틈을 주지 않고, 매년 한두 작품씩 꾸준히 해온 그가 이번에 도전한 새로운 과제는 친민이다. 주로 도회적인 모습으로 카리스마를 내뿜어온 그가 가장 밀바닥 계층에 있는 친민의 얼굴로 관객과 마주한다. 31일 개봉하는 영화 '대립군'(감독 정운철)에서 그는 대립군 수장인 토우 역을 맡았다. 영화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 피란한 선조를 대신해 분조를 이끄는 광해(여진구)가 대립군의 도움을 받아 왜군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았다.

"토우라는 인물은 산에서 먹고 사는 백정 수준이다. 그런 거친 사람들의 우두머리라 더 거칠게 해야 하는데 그걸 연기로만 표현하기 쉽지 않더라. 말투, 행동 하나하나 바뀌었다.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인물이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대립군'이라는 세 글자였다. "단어조차 생소한 '대립군'에 끌렸다. 저항세력에 반기를 든 군대 같기도 하고, 비정규군 같기도 하다. 소재도 특이하고 '진정한 군주(리더)는 백성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객도 많이 공감할 것 같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나라를 흔들었던 사극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같다. 3년 전

기획된 영화라 이런 상황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과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치적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기도 했다. 가령, '지옥에선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갈 수 없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마치 '헬조선'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감독에게 '피해자가'고 했더니, 되레 '우리 시원하게 가자!'라고 하더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떠났다."

영화는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세트를 배제하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촬영했다. 덕분에 배우들의 실제 고생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그는 "길고 긴 험난한 여정이었"고 돌아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투 장면에서 나오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라고 했다. '산 사나이' 특성상 쉴 때도 휴식을 의자에 앉을 수 없고, 땅에 드러눕기 일쑤였다. 체력의 한계를 맞 보고, 배우들과 찾는 작은 위안이라고는 촬영 후 즐기는 '소맥' 한 잔뿐이었다. 촬영 초반에는 빨리 친해지기 위해 반주로 한두 잔씩 즐겼지만, 언제부터인가 횡수가 잦아지면서 소맥이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

"5개월 정도 함께 하다보니 가족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동료애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헤어지기 아쉬운 존재가 됐다. 그들과 반주를 곁들이며 보낸 시간이 그립다."

이정재 기자 annjoy@donga.com



이정재는 영화 '대립군'에서 친민의 얼굴로 관객을 만난다. 도회적인 모습으로 카리스마를 내뿜어온 그의 새로운 도전이다. 사진제공 | 이심세기복스코리아

### ? 이정재

▲1972년 12월15일생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1993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 ▲1994년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젊은 남자'로 청룡상 등 신인상 ▲1998년 영화 '정사' '태양은 없다' 등 주연 맡으며 활약 ▲2012년 '도둑들', 2013년 '관상', 2015 '암살' 등 잇단 흥행 ▲2016년 '신과 함께' '대역전' 등 한 해 1~2편씩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

## 소속사 이사직 맡은 이정재 “다들 ‘이 부장’이라 불러요”

아티스트 컴퍼니 소속 배우 15명 넘어 배우들과 대본 리딩 파트너 역할 자처

이정재는 지난해 절친인 정우성과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이름의 매니지먼트사를 차렸다. 처음엔 단 둘이 출발했지만, 어느새 소속 배우들이 15명을 넘었다. 하정우,

염정아, 고아라, 김의성, 배성우 등 면면도 화려하다. 최근 소속 배우 전원이 촬영한 화보는 여는 시상식 뒤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정재의 직책은 '이사'다. 이 이사는 "회사가 커지는 것보다 배우들이 매일 회사에 출근 하는 걸 보는 게 더 즐겁다"고 했다. 그 역시 일정 없는 날이면 출근한다. 악덕업

주(?)가 아니라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다.

이들은 세 개의 공간에서 편하게 시나리오를 읽고 회의를 하며 함께 영화를 본다. 정우성과 이정재가 낸 아이디어다.

"배우들이 많다보니 시나리오와 대본이 낯선다. 서로 함께 연습하면서 대사를 맞춰 본다.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들러 호흡을

맞춰보기도 한다. 활동적인 성격상 말을 많이 하다보니 동료들이 날 '이 부장'이라고 부른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정재는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고 해도, 서로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힘든 점이나 속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는 "회사가 아니라 작은 소모임 같다"며 "같은 길을 걸으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 엇갈린 넷플릭스 유통 논란... '칸'이 남긴 과제

### ■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

넷플릭스 '육자' 자사 플랫폼 공개 방침 심사위원회 찬반양론...영화계 큰 파장



제70회 칸 국제영화제가 29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막을 내렸다. 18일 개막해 홍상수 감독의 '그 후'와 봉준호 감독의 '육자'를 비롯한 19편의 경쟁부문 초청작 등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영화가 축제의 잔치 상에 올라 관객을 만났다. 넷플릭스로 상정되는, 미래 영화 유통방식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이어졌다. 극장 밖에서는 영국 맨체스터 테러로 인해 더욱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를 돌아본다.

### ●영화의 과거...70년의 영광, 한국영화의 성장

칸 국제영화제는 세계 최고 권위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70년 동안 배출해온 수많은 감독과 배우가 세계적 명성 속에 영화계를 키우기도 했다. 영화제 70주년을 기념하며 한

자리에 모였던 미카엘 하네케, 데이비드 린치, 박찬욱 등 스타 감독과 니콜 키드먼, 모니카 벨루치, 샤를리즈 테론 등 배우들의 면면이 이를 입증했다.

그 속에서 한국영화 역시 함께 성장했다.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것으로 시작으로 박찬욱, 이창동 감독 등이 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배우 전도연은 2007년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칸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칸 국제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칸 필름마켓에서도 한국영화는 해외 세일즈를 통해 그 저력을 과시해왔다.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부흥이 그 밀바탕을 이뤘다. 100여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한국영화는 그 성장의 한복판에서 칸을 또 다른 디딤돌 삼았다.

### ●영화의 현재...뜨거운 열정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겸 수석프로그램의 감작스런 부고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관계자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가져다주었다. 김 부위원장은 매년 칸뿐 아니라 술한 해외출장 업무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제70회 칸 국제영화제가 다양한 이슈로 화제와 논란을 불러 모은 뒤 29일(한국시간) 폐막했다. 사진은 영화제 주 행사장인 필레 데 페스티벌 전경. 칸(프랑스)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초청작과 게스트를 섭외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오로지 열정 하나만으로 한국영화를 비롯한 아시아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칸과 베를린, 로테르담 등 해외의 애도 물결은 고인의 열정에 대한 헌사였다.

바로 그런 것처럼 칸 국제영화제는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관객은 상영작의 티켓을 구한다는 뜻말을 듣고 극장 앞을 서성거린다. 또 초청작 상영이 끝난 직후 터져 나오는 객석의 기립박수와 환호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든 이들의 열정에 대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이다.

### ●영화의 미래...넷플릭스 논란 그리고 장르영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

과 화제는 넷플릭스였다. 미국 동영상 사이트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투자한 '육자'와 '더 메트로워즈 스토리'가 경쟁부문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두 작품을 일반 극장 상영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논란은 달아올랐다. 프랑스 극장가의 반발을 산 데 이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가 수상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심사위원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에 대해 심사위원인 윌 스미스가 "넷플릭스가 아이들의 영화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혔다"며 맞선 것은 그 상징이다. 논란은 향후 영화의 유통 및 상영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추리의 여왕' 일본 방영 권상우 한류 파워 여전



권상우

원조 한류스타 권상우가 일본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권상우가 주연한 KBS 2TV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이 25일 종영 후 일본 한류전문 채널 KNTV에서 7월29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방송된다. 2013년 '메디컬 탐탐' 이후 4년 만에 현지 시청자들과 만난다.

20대 젊은 스타들의 일본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40대 권상우의 저력이 돋보인다. 2003년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한류 스타덤에 오르며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연작을 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현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증거다.

특히 이번 드라마를 통해 데뷔 초반 선보였던 장난기 가득한 매력을 오랜만에 드러내 팬들의 반응이 더욱 열광적이다. 극중 강력계 형사로 출연하지만 무게를 잡는 설정이 아닌 상대역 최강희와 티격태격하는 관계가 '툼과 재리'를 연상케 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권상우의 활약에 드라마도 평균 10%(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권상우의 매력은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한 '사심춘기'가 KNTV를 통해 이달 초 전파를 타며 다시 한 번 현지 팬들에게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권상우가 일본에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팬들과 꾸준한 소통을 꼽는다. 매년 한 차례 이상 팬미팅 등 현지에서 행사를 열며 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화 '탐정:더 비기닝'을 소개했으며, 다섯 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팬들과 시간을 공유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연예뉴스 스테이션

### FT아일랜드, 데뷔곡 '사랑앓이' 재해석

그들 FT아일랜드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데뷔곡 '사랑앓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FT아일랜드는 28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 10주년 기념 스페셜 디지털 싱글 '사랑앓이'를 공개했다.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해 보컬 이흥기가 가수 김나영과 함께 불러 완성도를 높였다. 2007년 데뷔한 FT아일랜드는 6월7일 10주년 기념 앨범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앞서 4일에는 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10년을 추억하는 '삼타일포차'를 연다.

###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 멤버 정준업 결혼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시스트 정준업(34)이 27일 결혼했다. 정준업은 예식을 하루 앞두고 팬카페에 결혼 소식을 알리며 "나름대로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해 6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다 결혼으로 앞으로 만남을 이어가자고 결심했다"며 "아내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장기하와 얼굴들은 좋은 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만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유진한·김대건 기자

##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5월 21일~5월 27일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캐리비안의 해적 5	1,080,385	05/24
2	갯 아웃	1,574,916	05/17
3	노무현입니다	386,467	05/25
4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804,497	05/17
5	보스 베이비	2,290,148	05/03
6	킹 아서: 제왕의 검	401,170	05/17
7	보안관	2,568,653	05/03
8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2,713,984	05/03
9	에이리언: 커버넌트	1,291,062	05/09
10	목소리의 형태	268,984	05/09